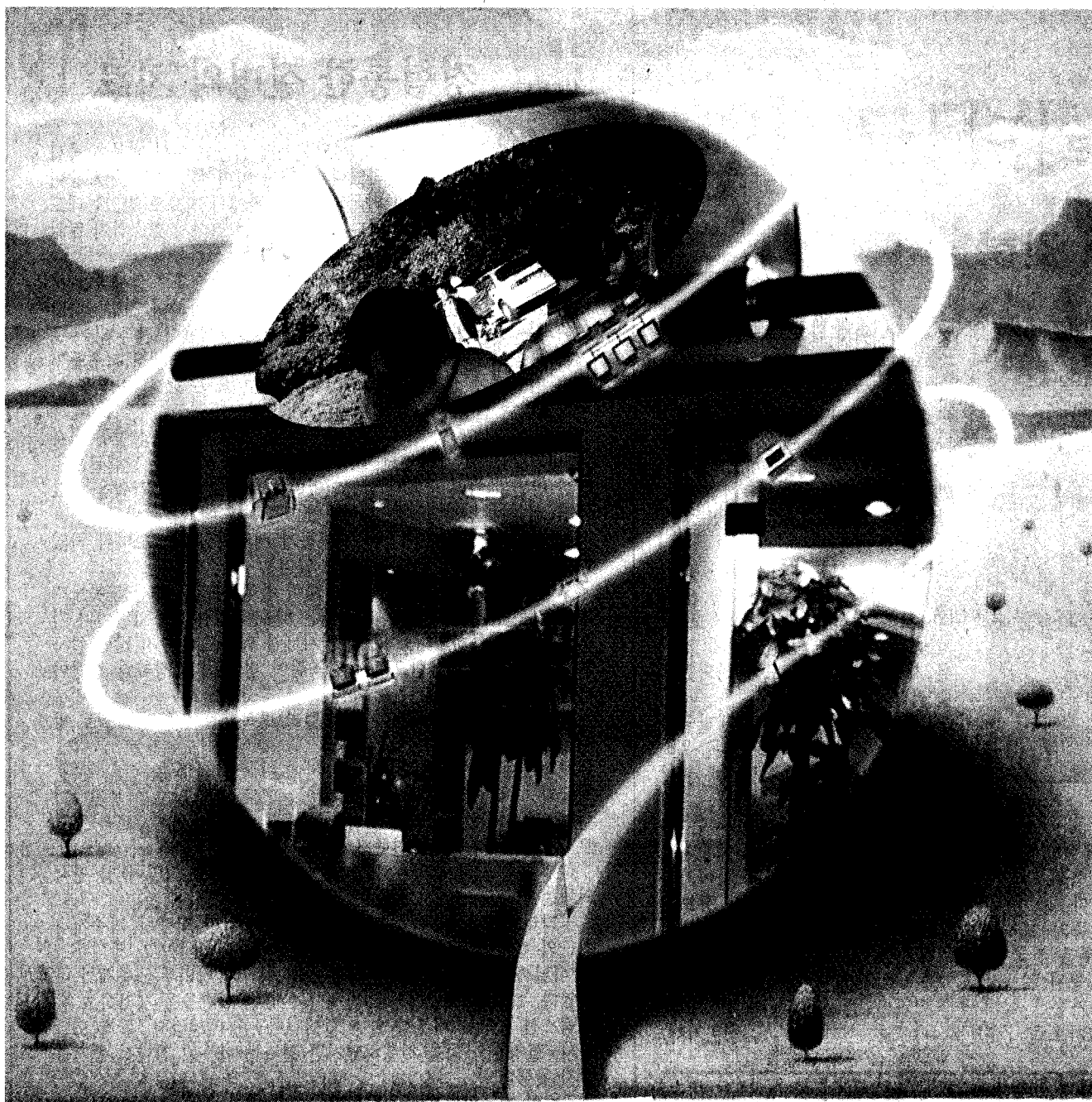




□ 정보통신과 소비

휴대폰 과장광고, 과소비 부추긴다

정

보통신'은 현대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화두이다. 인터넷에서 개인휴대 통신 등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생활의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일개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사활을 거는 분야인 만큼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은 일견 당연한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자연발 생적이기 보다 인위적인 측면이 강한 것 만큼이나 최근의 개인휴대통신에 대한 열기도 과도한 것 또한 사실이다.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판촉전은 선의의 경쟁을 넘어 대학생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휴대폰의 경우 기존의 셀룰러폰 시장에서도 두 개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전을 벌였는데 지난달부터 PCS 폰 사업까지 시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적지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

기존의 휴대폰과 PCS의 차이점은 800MHz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셀룰러 휴대폰과는 달리 PCS는 1.8GHz대의 고주파 대역을 사용한다는 것뿐 별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PCS의 고주파는 전파의 직진성이 강한 반면 회절성, 장애물에 대한 투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의 이면도로나 대형건물 등에 가려진 곳, 건물안 통신서비스에는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를 통해 학생들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 주변에서도 PCS를 판매하기 위한 모니터 요원들을 자주 보게된다. 그리고 학교 앞 상가들에 통신업체 대리점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도 볼 수 있다. 각 PCS 업체들의 경쟁적인 판촉전은 적자생존의 경제원칙이라는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신기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본다면 주요고객을 이들에게 맞추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 사용이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는 면에서 본다면 PCS의 구매를 강요하는 듯이 몰아가는 것도 지나친 상술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군다나 대학생들의 소비경향이 사회 어느 계층에 비해서도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면 대학 사회에

불고 있는 PCS열풍은 또다른 소비 조장이 아닐 수 없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소비를 강요하는 PCS업체들의 판촉전은 또다른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특히나 자신에게 필요한가의 여부를 인식하기도 전에 현란한 광고문구와 잡아끌기에 의해 구매하게 되는 PCS라면 그것의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 대학의 소비문화를 부추기는 또다른 요인은 아닌 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김동혁 기자)

대학생들의 소비경향이 사회 어느

계층에 비해서도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면 대학 사회에

불고 있는 PCS열풍은 또다른 소비

조장이 아닐 수 없다

□ 대학생 통신문화를 비판한다

정보화시대속의 부패된 황금오리알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폰으로 긴급 연락할 일이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일까. 학생들의 생활이 규칙적이고 일과가 짜임새 있으면 전화를 걸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약속과 예약문화에 익숙해 있으면 굳이 길을 건너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도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계획하고 짜임새 있는 생활습관이 미숙한 것이다.

‘따르릉 따르릉...’ 강의도중 웬 전화벨소리. 교수님을 비롯 많은 학생들이 한 학생을 쳐다본다.

그 학생은 얼굴이 빨개진채 핸드폰을 들고 뛰쳐나간다. 다른 한쪽에서는 ‘빠리릭 빠리릭’ 뽀뽀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요즘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새로운 수업풍속도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핸드폰, PCS, 시티폰 등 개인용휴대전화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레헨 벨이 처음 전화를 발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제는 손바닥만한 휴대폰을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닌다. 그레헨 벨 스스로도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많은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수요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 뽀뽀만 있어도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이제 뽀뽀는 옛 전유물이 되어 버렸고 그 자리를 핸드폰, PCS, 시티폰 등의 통신기기가 메꾸고 있다. 물론 입학이나 졸업선물의 1위도 핸드폰이 차지했음은 당연하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인 핸드폰. 그러나 핸드폰의 가격이 너무 비싸 대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서 나온 것이 시티폰(City Phone)이다. 크기와 모양은 핸드폰과 비슷하고 가격도 싸다는 것이 핸드폰을 가지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불편한 점이 없진 않다. 핸드폰처럼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걸 수만 있는 것이다. (일반 공중전화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공중전화기에 달린 단말기에서 100m 이상 멀어지면 전화를 걸기가 어렵다. 그만큼 거리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핸드폰의 장점과 시티폰의 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해 준 것이 최근에 나온 이른바 PCS라는 것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핸드폰의 기능과 똑같은 점에서 대학생들의 또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기존 핸드폰의 주파수와 다른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통신기기들은 과거와 달리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자신이 어디를 가든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는 바로 내 주위에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뒷주머니에 무심코 꽂고 다니는 통신기기 속에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이러한 통신기기들이 어

디서 생겼을까하는 것이다. 아마 부모님이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것을 쓰는 학생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그렇다면 통화요금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론 자기가 아르카이트를 해 직접 내는 경우도 있지만 통화요금의 액수가 만만치 않은 만큼 대부분 부모님에게 의지한다. 무작정 자기 편한대로 사용하고 요금은 걱정하지 않는게 요즘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현주소이다. 또한 어디서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강의실, 음악회, 심지어는 법정에서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왜 핸드폰이나 PCS 등의 통신기기들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

해답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일단 아무데서나 통화가 가능한 편리함과 남들과 차이를 보이려는 우월감이다. 손에 들고 다니거나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꽂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고 폼이 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대학문화가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다. 과연 학생의 신분으로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폰으로 긴급 연락할 일이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일까. 학생들의 생활이 규칙적이고 일과가 짜임새 있으면 전화를 걸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약속과 예약문화에 익숙해 있으면 굳이 길을 건너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도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계획하고 짜임새 있는 생활습관이 미숙한 것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겪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었다. 공중전화에서 몇분을 기다리지 못해 사람을 죽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화시대 속에서 이런 성급함과 조급함이 낳은 것이 통신기기가 아닐까한다. 물론 휴대폰의 발달이 우리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휴대폰의 보급율과 이용율이 수직적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요즘 통신기기 속의 대학생들의 현주소를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할 때이다.

(김동혁기자)



▲공중전화기옆에 있는 기지국(시티폰의 전파 전송기)의 모습. 많은 학생들이 시티폰(city phone), PCS, 핸드폰의 통신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공중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 휴대폰과 생활문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져야

최근 휴대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장소에 따라 올바른 휴대폰 사용법을 알아야...

길을 걸어 가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커피숍에서 잠깐 음료를 마실때에도 옆사람은 의식하지 않은 듯 제법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하철안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움직일 공간이 없는 데도 휴대폰이 울리면 제각 거내서 통화를 한다. 버스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사람들에게 자랑이나 하듯이 휴대폰을 들고 큰소리로 통화를 한다. 나 지금 학교근처인데 몇분있으면 도착할까야.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들을. 분명 통화하는 다른 상대방은 조그맣게 말해도 잘 들린다 말이다.

휴대폰의 요금은 일반전화요금에 비해 더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요금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는 의식하지 않고 곧잘 사용하곤 한다. 이렇게 최근 휴대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만약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올바른 휴대폰 사용법을

알아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겠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1. 열차나 전철 안에서 사용할 때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2. 음악회, 영화관, 미술관 등에서는 휴대폰의 전원을 꼭 끄도록 하자.
3. 거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4. 운전중에는 가능하면 휴대폰을 쓰지 않도록 하자. 부득이 사용해야 할 때는 꼭 핸드프리 키트를 이용하자. 주행중의 휴대폰 사용은 대단히 위험하다.
5. 항공기나 병원 등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전원을 꺼놓자. 휴대폰이 정밀한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6. 휴대폰 전원을 꺼야 할 경우 음성서비스나 한글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유사시 직접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전달받을 수 있다. (자료:조선일보)